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첫 삽 뜬다

국비 486억 확보...상반기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
총사업비 6974억 원 투입해 2031년까지 완공 예정



여수~남해 해저터널(국도 77호선)이 올해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저터널 사업은 총사업비 6,974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 해저터

널 5.93km 포함 총 연장 7.31km, 4차로 도로가 신설되며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작년 9월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공고를 거쳐 터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 진행 중이다.

입찰을 위한 사전심사 서류접수에는 DL이엔씨,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3개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서류 제출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5월 설계·시공 적격자가 선정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한 해저터널 기대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여수와 남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통사고 저감과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관광 부문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남·서해안 해상관광 교통로인 국도 77호선(경기도 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함으로써 관광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서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남해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겨울엔 반짝반짝 빛나는 광양야경이지”

선샤인 해변공원·이순신대교·구룡산전망대 등 은은한 빛의 심포니

광양시가 선샤인 해변공원, 이순신대교, 구룡산전망대 등 감성을 자극하며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야경명소를 추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은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이라는 관광 슬로건에 걸맞은 아름다운 풍경과 찬란한 야경을 자랑한다. 특히, 차가도 걷조한 날씨로 대기가 투명해지는 겨울밤은 은빛 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광양야경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계절이다.

선샤인 해변공원은 금호대교, 길호철교, 길호대교, 이순신대교 접속교, 해안 라인 등이 아름다운 선율을 그리듯 환상적인 빛의 심포니를 펼친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광양만 물결에 스며드는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무지개다리, 해오름육교 등과 어우러지며 은은한 도심 야경을 완성한다.

철로 만든 하프루 불리는 이순신대교는 유려한 자태와 광양만을 수놓는 야간경관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초 100% 국내 기술 현수교라는 타

이들을 자랑하는 이순신대교는 총연장 2,260m, 왕복 4차선 규모로 광양과 여수를 잇는다. 주탑 간 거리 1,545m는 이순신 장군 탄생 연도로 당시 일본 아카시대교(1,991m), 중국 시호 후 뎬니까(1,650m),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교(1,624m)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를 기록했다.

광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구룡산전망대도 '한국관광공사 야간경관 100선'에 걸맞은 찬란한 야경을 자랑한다.

해발 473m 정상까지 구룡양장으로 흐르는 길을 오르면 광양향,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등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멀리 순천, 하동, 남해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광양만으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에 빠져들다 보면 금세 어둑어둑 밤이 찾아오고 은빛으로 빛나던 메탈아트 봉수대는 찬란한 금빛으로 변신해 신비한 아우라를 발한다.

역동적인 삶의 현상이었던 광양향,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도 빛의 은하수를 이루며 윤슬로 반짝거린다.

광양=김현근 기자

보성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신청·접수

보성군은 전라남도도와 함께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백만 원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시행

물가상승 등 위기극복과 지역상권 살리기 최선 노력

고흥군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군은 지난해 375억원을 발행해 특별할인으로 311억원을 판매했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액 1,220억원을 기록했다.

고흥군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고흥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연중 시행하고 있어 상품권 판매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2가지로 판매되고 있으며, 개인 구매 시 월 50만원까지 표기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주, 법인(단체)은 할인가 구입이 제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45개소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2,373개 업체(전통



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협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발급 가능했던 고흥사랑카드(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해 우체국에서도 고흥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는 'chak' 앱을 통해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도 농협, 우체국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할 수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대학협력팀 신설...상생협력 강화 기대

지역-대학 상생협력, 인재 육성, 대학 연계 사업 발굴 등 업무 수행

순천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에 대학협력팀을 신설했다.

시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지역대학이 혁신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방식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힘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신설된 대학협력팀은 지역-대학 상생협력 방안 수립,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대학 연계 관련 사업 발굴 및 협력 지원 활동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 1월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시는 인재 양성 및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식학(지자체·산업계·대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학협력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은숙 평생교육과장은 "지역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내고 빛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